

Ajinomoto, 라이신 55만톤으로 확장

세계시장 점유율 30% 목표 ... 5000만달러 투입 복미 생산능력 증설

Ajinomoto는 Degussa를 선두자리에서 밀어낼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라이신(Lysine) 사업 확장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jinomoto의 최종목표는 생산능력 55만톤의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30%를 확보하는 것이다.

Ajinomoto는 2005년까지 라이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산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jinomoto는 라이신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총 54억엔(5000만달러)를 투자해 라이신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Ajinomoto Animal Nutrition은 현재 라이신 생산능력을 20만톤에서 50% 정도 증설하고 있다. Ajinomoto Heartland는 아이오와주 Eddyville 플랜트 생산능력을 1만톤 증설하고, Ajinomoto Bioitalia SpA는 이태리 Rovigo의 Bottrighe 플랜트 생산능력을 1만톤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타이 Pathum Thani 소재 3만톤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5만톤 증설할 계획이다.

Ajinomoto는 2002년 가을 브라질 자회사 Ajinomoto Biolatina Industria의 상파울로 Valparaiso 소재 라이신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100%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생산량을 3만톤에서 4만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확장공사가 2003년 9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또 2차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6만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Ajinomoto는 최근 라이신 수요가 가파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생산능력을 7만2000톤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특히 브라질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Ajinomoto는 브라질 플랜트 확장에 2600만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4/27>